설 명절 가족, 자녀, 친구를 강진으로 초대합니다

반값여행으로 나누는 설의 기쁨… 사전신청 벌써 4,055팀

'설 연휴 맞아 가족·자녀·지인과 함께 강진에서 여행은 반값, 기쁨은 두 배!'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가족과 함께 여행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설 연휴 성수기를 맞아 치솟는 물가와 여행 경비 부담은 여행 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의 즐거움과 가성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반값여행을 계기로 군민이 가족·자녀·지인을 강진으로 초대해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함께 반값의 혜택과 명절의 기쁨을 나누길 기대하고 있다.

강진 반값여행은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포털사이트에서 '강진 반값여행'을 검색해 홈페이지(gangjintou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행이 끝난 후 강진에서 여행하고 소비한 금액의 50%를 개인은 최대 10만 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설 명절 연휴에는 해외여행이나 타 지역 방문 대신 반값여행을 활용해 고향 강진을 찾는 출향민 가족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따뜻한 고향 여행'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값여행을 계기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와 가족이 함께 고향 강진을 찾는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시행 3주 만에 사전신청 4,055팀이 승인되며 빠르게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1,304팀이 실제 강진을 방문해 강진에서 4억1,168만 원을 소비하고, 1억9,156만원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아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강진에 머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반값여행이 고향을 찾는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부담은 줄이면서 추억은 더하는 명절 여행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흥군, 정부서울청사 지역 특산품 판촉행사 개최

지역 우수 농·특산품 판매 및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 전개

장흥군은 9일 정부서울종합청사 로비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한 특산품 판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흥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직접 소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이날 특산품 홍보와 함께 정부청사 직원들의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행사장에서는 무산김, 막걸리, 육포 등 장흥군을 대표하는 품목이 전시·판매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식 및 할인 판매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 중에는 장흥군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장·차관등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번 특산품 판촉행사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청사 공무원들에게 장흥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다양한 행사 참여 및 판촉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으로 지난 10월 외교부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한외교단 대상 홍보부스 운영, 관광교류, 고향사랑 기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완도군, 지역 화폐 800억 원 규모 발행 경제 활성화 도모

누적 판매액 2,406억 원, 군민 가계·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여

완도군은 올해 완도사랑상품권을 8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와 정책 수당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첫 발행됐으며 누적 판매액은 2,406억 원, 지난해 679억 원이 판매돼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상품권은 지류와 함께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병행 운영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 할인은 기존과 같게 10%, 모바일 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상향했다.

개인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연간 700만 원까지 늘렸으며, 상품권은 관내 2,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음식점, 골목 상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비중이 높아 매출 증대와 상권 회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정책 수당과 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군은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중심의 유통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역 화폐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은 군민의 가계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재난 안전 관리 사항 등 주요 현안 점검

겨울철 화재 예방·해빙기 안전관리 등 사전 예방 점검

전남 곡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간부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겨울철 화재 예방과 해빙기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를 공유하며,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살폈다. 읍·면을 중심으로 한 불법 소각 예방 활동과 함께 축산시설 화재 예방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검토됐다.

특히 전기·난방기기 사용과 가연물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축산 농가의 안전관리와 노후 전기 배선 등 시설 관리 개선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는 시기를 맞아 해빙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논의됐다.

지반 약화로 각종 공사 현장과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을 추진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연휴기간 쓰레기 처리, 상수도, 교통, 응급의료 등 생활과 관계된 대응 체계 점검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와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돌봄 등 민생 관련 사항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또한 연휴 기간 관광객 방문에 대비해 섬진강 기차마을과 도림사, 가정역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와 이용 불편 요소를 사전에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난·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구례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3월 31일까지 접수

2월 9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남 구례군은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전라남도 내 문화복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1998년~2007년 출생자)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에게도 전액 지원하며, 이는 전년도까지 차액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개선된 사항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월 20일부터는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하고,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리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실 청년희망과(☎061-780-2962)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담양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스마트워치 활용한 맞춤형 건강 상담으로 군민 건강 챙긴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70명을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 워치(활동량계)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개인의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건강, 영양, 운동에 대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담양 군민 또는 담양군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검사 결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지질단백질(HDL) 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현재 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는 제외되며 군 보건소는 사전검사 및 상담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6개월(24주) 동안 사업 중 3번(최초/중간/최종) 필수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사업전담팀과 함께 개인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월 1회 영역별 집중 관리 및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앱 연동 스마트워치(활동량계)를 지급하고, 월별 진행되는 행사(이벤트) 참여나 활동 점수(포인트) 적립을 통해 상위 순위에 오르면 보상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과 생활 습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담양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80-2537)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담양/이종옥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